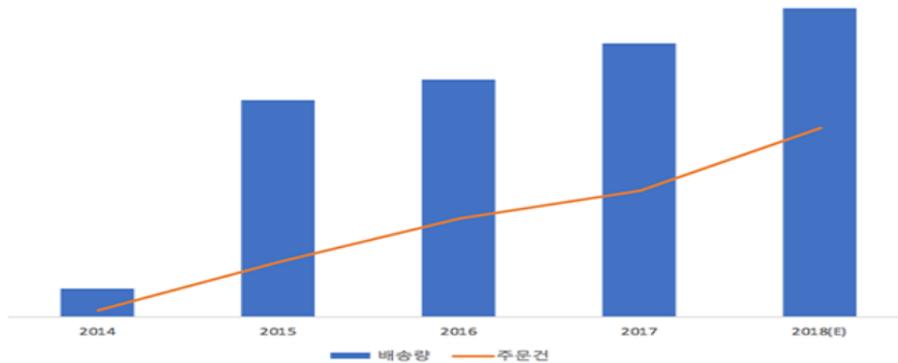


[보도자료] 로켓배송 4년, 10억 개 상품 배송 완료!

2018. 9. 20.

로켓배송 성장 추이



- 2014년 로켓배송 시작, 2018년 현재 누적 배송상품 10억 개 달성
- 상품 매입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해 고객경험 업그레이드
- 쿠팡플렉스 등 새로운 혁신을 통해 로켓배송 성장 이어갈 것

2018. 9. 20. 서울 – 이커머스 기업 쿠팡(대표 김범석, www.coupang.com)은 로켓배송 누적 배송 상품이 4년여 만에 10억 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객이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로켓배송은 자체 기술로 운영하는 물류 센터를 세우고 직접 고용한 택배기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했다. 상품 구입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독창적인 엔드투엔드(end-to-end) 이커머스였다.

고객들은 로켓배송을 사용하면 필요한 상품 대부분을 다음날 받아본다는 점에 열광했고 쿠팡은 매년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처음 로켓배송이 시작된 2014년의 연간 배송 상품은 2300만 개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월 15일 기준으로 이미 2억6100만 개를 배송 완료했다. 4년여 만에 열 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쿠팡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로켓배송 상품 품목도 현재 약 350만 종에 이른다. 일반 대형마트의 상품 셀렉션은 약 5만 종 수준이다.

쿠팡은 로켓배송의 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 연말까지 1000명의 쿠팡맨을 신규 채용한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쿠팡플렉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배송 일자리도 선보였다. 쿠팡플렉스 지원자는 자신이 원하는 날짜만 선택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낮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 가정주부 등으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나비드 베이세 쿠팡 이커머스 SVP는 “쿠팡의 로켓배송 누적 배송량 10억 개 돌파는 쿠팡만의 첨단 물류 인프라와 수백만 종의 셀렉션, 가격 경쟁력, 탁월한 고객 서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